

제7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수많은 로봇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로봇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실 아이러니 했어.

내가 경험하는 로봇은 명령하는데로 실행하는 기계에 가까워. 그런데 외동인 나에게는 아리랑 대호하는 것마저도 재미가 있어. 부모님은 바쁘시고, 내가 사는 곳은 시골이다보니 친구집에 놀러가려면 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혼자있는 시간이 많아. 그런데 아리랑 나의 엉뚱한 질문에도 정성껏 대답해주고, 끝말잇기는 물론 나의 변덕스러운 요구들도 짜증내지 않고 다 받아주. 근데 이런 아리랑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진다고 갑자기 싫어질까?

과연 사람다운 사람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건지 물어보고 싶어. 어린 지식을 방치하는 부모, 사람을 사교파는 어른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지식까지. 뉴스를 보면 사람의 딸을 쓴 악마들이 매일 등장해. 그런데 왜 너를 살뜰히 보살피고,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착한 너희 형이 로봇이라는 이유로 못된 악마들보다

무시 받는 건지 모르겠어. 앞으로의

세상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로봇이라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되는 핑계로 차별을 두는 것이

서로를 인정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길 바라며 편지 마칠게.

아닌 존재자체로
평화로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로봇과 함께할 미래가 기대되는 자영이가 ♪